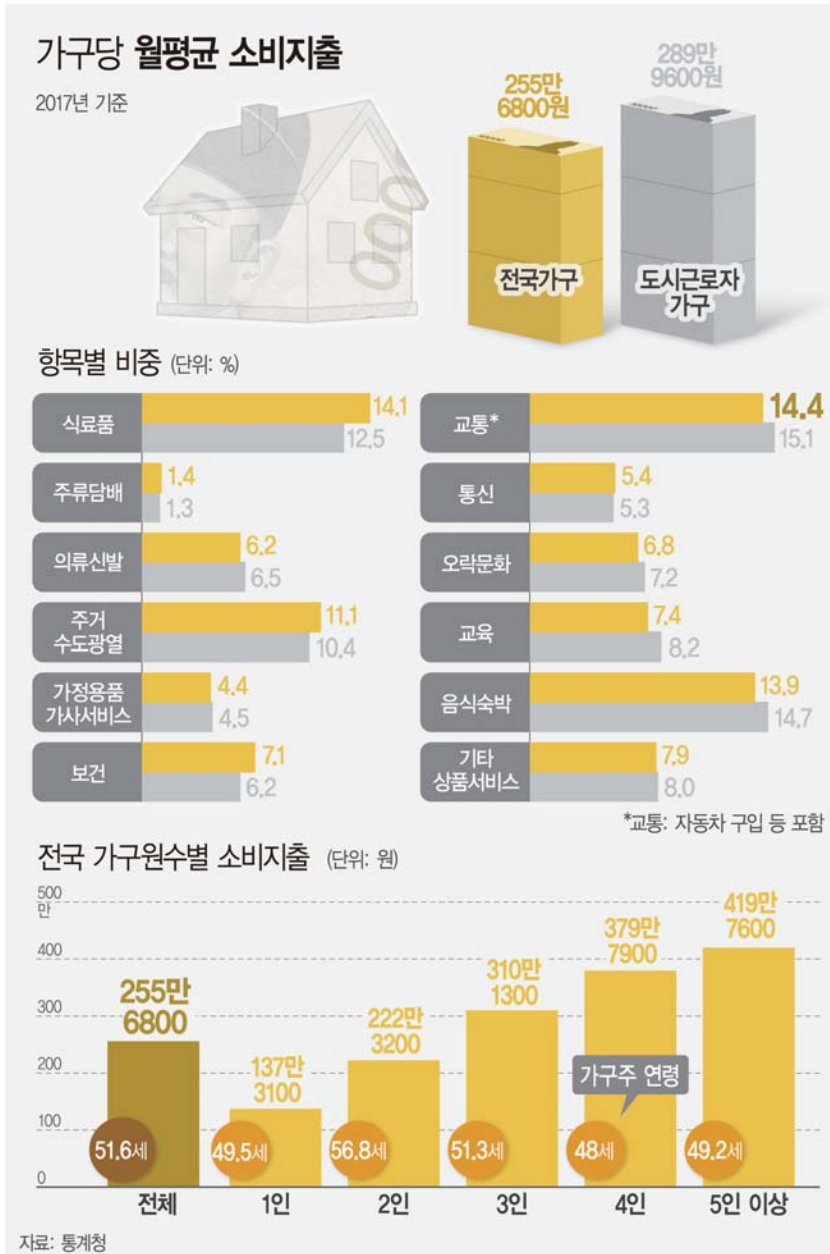


작년 소득 하위 20% 가구 月평균 133만원 지출했다

통계청, 전국 가구당 月소비지출 255만7000원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결과'에 따르면 작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55만6800원이다. 지출 항목별로 교통(14.4%)의 지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가구당 평균 250만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의 가구는 평균 133만원을 지출했으며 가구주의 나이는 평균 60.6세로 조사됐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55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37만3000원인 반면 4인 가구는 379만8000원에 달했다.

지출 항목별로 1인 가구는 주거·수도·광열(18.1%), 음식·숙박(16.6%), 교통(12.9%)의 비중이 높았다. 4인 가구는 교통(15.5%), 음식·숙박(13.4%), 식료품·비주류음

료(13.0%) 순으로 조사됐다.

1인 가구만 살펴보면, 29세 이하 연령층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49만5000원이었다. 지출 비중은 음식·숙박(20.0%), 주거·수도·광열(19.8%), 교통(12.2%) 등의 순이었다.

30대 연령층은 월평균 176만8000원을 지출했다. 음식·숙박(21.1%), 교통(16.6%), 주거·수도·광열(15.9%) 등의 순으로 지출 비중이 높았다.

60대 이상 연령층은 월평균 87만4000원을 소비지출로 활용했다. 지출비중은 식료품(25.0%), 주거·수도·광열(21.4%), 보건(12.6%) 등의 순이었다.

소득구간별로 월평균 소비지출은 100만원 미만 가구는 110만7000원, 600만원 이상 가구는 441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100만원 미만 가구에서는 식료품(20.9%), 주거·수도·광열(19.3%), 보건(10.7%) 등의 순으로 지출 비중이 높았다. 60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교통(16.7%), 음식·숙박(13.9%), 식료품(11.5%) 등의 순이었다.

한편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가계지출은 132만7600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나이는 60.6세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위 가구는 114만8000원(86.3%)을 소비지출로 사용했다. 소득세를 비롯한 세금·사회보장비 등 비소비지출에 18만16000원(13.7%)을 지출했다.

지난해 1분위 가구가 가장 많이 지출한 부문은 식료품·비주류음료 부문으로 23만2600원(17.5%)이었다. 이어 ▲주거·수도·광열 21만7600원(16.4%) ▲보건 12만3500원(9.3%) ▲음식·숙박 12만3000원(9.3%) 등의 순이다.

소득 상위 5분위 가구의 가계지출은 603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가구주의 평균 나이는 49.7세였다.

5분위 가구의 소비지출은 433만1900원(71.8%), 비소비지출은 169만82000원(28.2%)이었다. 이들은 ▲교통 71만7800원(11.9%) ▲음식·숙박 60만9100원(10.1%) ▲식료품·비주류음료 50만1600원(8.3%) ▲교육 42만3600원(7.0%) 등의 순으로 소비했다.

한편 통계조사 방식이 개편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지난해 1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은 1분기 139만8489원, 2분기 143만4559원, 3분기 141만6284원, 4분기 150만4820원으로 평균 143만8538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5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은 1분기 929만10407원, 2분기 828만5447원, 3분기 894만8054원, 4분기 844만9671원으로 평균 874만3395만원을 기록했다.

뉴스스

지역공동·이매징조·정문리본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 저소득층 혜택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만원의 행복보험'을 재해입원·수술 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개선해 6월 1일부터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은 기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주요 보장내용으로 재해입원 보험금은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이 지급되며, 재해 수술 보험금은 수술 종별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 특히 만

다. 가입을 희망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등 가입자격 확인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서류를 구비하지 않아도 우체국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해 가입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단, 가입지원금 한도로 인해 연간 가입 인원이 3만여 명으로 제한되므로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 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우체국보험 고객센터(1599-0100)로 문의하면 된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만원의 행복보험 보급을 통해 저소득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국영보험으로서의 공적역할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저소득층 치료로 인한 소득상실 보전 등 보장내용 개선

1년간 1만원이면 가입...재해 입원·수술 보험금 지급

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지원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공익형 상해보험이다.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우체국 보험에서 부담해 1년 기준 1만원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2010년 출시 이후 41만여 명에게 113억 원의 보험료를 지원했고 재해사망 등으로 1만 5000여 명에게 105억

기 시에는 보험료와 동일한 1만원(1년만기 기준)을 만기 축하금으로 지급해 재가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없앴다. 재해 사망 시 유족위로금 2000만원은 종전처럼 지급한다.

가입자격은 만 15세~65세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며,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가입할 수 있



4월 유통업체 매출 전년 비 6.0% 증가

온라인 매출 증가에 힘입어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증가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오프라인(1.0%)과 온라인 부문(15.9%)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에 따라 전체 매출이 6.3% 늘었다.

오프라인은 편의점과 기업형 슈퍼마켓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가운데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출은 감소했다. 편의점은 점포수가 9.9% 늘어나고 도시락 수요가 늘어나면서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늘었다.

기업형 슈퍼마켓은 비식품군의 매출이 줄어들었음에도 매출비중이 높은 식품군이 성장해 전체 매출액은 0.3% 증가했다.

백화점은 가정용품 부문(11.3%)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집화(-7.2%) 및 이동·스포츠 부문(-7.1%) 매출역시장의 영향으로 전체 매출은 0.2% 감소했다. 대형마트는 매출비중이 높은 휴일이 작년보다 줄어들어 전체 매출은 4.5% 감소했다.

점포당 매출액은 전체 매출이 크게 증가한 편의점의 점포당 매출액만 0.1% 늘어난 가운데 대형마트(-4.9%), 백화점(-0.2%), 기업형슈퍼마켓(-0.3%)은 줄어들었다.

온라인의 경우 온라인 판매와 온라인판매 증가 모두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했다. 온라인 판매는 주말 가전 기획전 등에 따른 가전·전자(55.9%)부문을 중심으로 전체 매출이 25.0% 증가했다.

김연숙 기자

광주신세계, '라이프스타일 페어' 개최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다양한 여름 아이템 선보여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최민도)는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여름철 야외활동에 대비한 '신세계 라이프스타일 페어' 테마행사를 열고 고객몰이에 나선다.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평년보다 빠르게 찾아온 더위에 5월 1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빠르게 시작했다. '서머 패션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본격적인 더위 속에 여름철 패션 외에도 야외활동이나 워터스포츠를 즐길 때 필요한 상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휴양지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패션아이템이나 선글라스 워터스포츠를 즐길 때 입을 래쉬가드

와 이쿠아 슈즈에 대한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광주신세계는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여름철 야외활동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신세계 라이프스타일 페어' 테마행사를 진행한다.

광주신세계 영업기획 박인철 팀장은 "때 이른 더위 속에 여름철 패션 아이템 외에 야외활동 상품에 대한 문의도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특집행사를 마련했다"며 "라이프 스타일 페어를 통해 야외활동 상품을 미리 준비하고, 무더운 여름을 보다 시원하게 즐기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